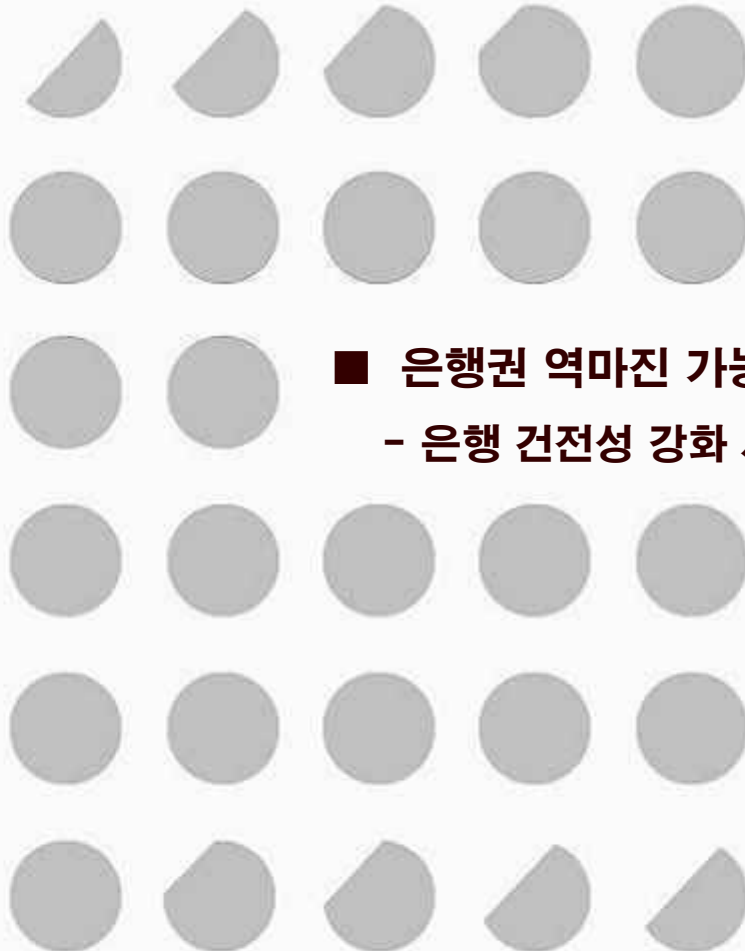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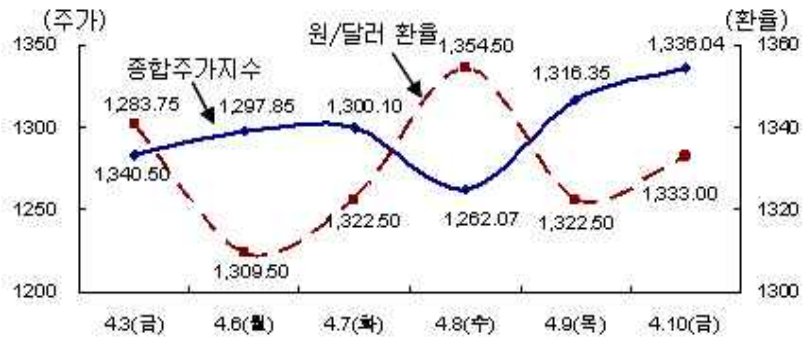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 은행 건전성 강화 시급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3~4.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 은행 건전성 강화 시급 1

주간 경제 동향 14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상승세 지속 14

□ 금융 부문 :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 역전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 은행 건전성 강화 시급

1.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

꾸준히 축소되던 예대금리차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5%p를 상회하였던 예대금리차 잔액기준 차 2008년 여름까지 1.5%~2.0%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08년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2008년 2월 현재 0.6%~1.4%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대출 및 국채 등에 대한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역마진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2. 역마진 가능성의 원인과 영향

(원인) 무엇보다도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압력이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인 CD유통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대부분 이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권 자금 조달비용 구조가 악화되면서 조달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각종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고비용 장기 조달 자금 비중은 2004년 24.21%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33.28%를 기록하였다. 반면 대표적인 무원가성 조달 수단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2004년 4.96%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2008년 4.16%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수신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과 단기(2년 이내) 예금비율 등이 매우 높아 쉽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 2008년 은행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역마진 현상은 첫째, 은행 이자이익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은행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이자수익 비중은 오히려 급감하고, 대출자산 대비 이자이익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당기순이익은 급증한 외환거래 이익 6.6조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15.0조원)에 비해 급락한 1.3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연체율 급증으로 은행권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1.7%였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9년 2월말 현재 2.67%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은행권 여신의 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재무제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2009년에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익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12%대로 올라선 BIS비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이슈화될 수 있다. 셋째,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경제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상반된 입장의 교착상태에 상당기간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대응과제

(정부) 정부는 은행권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금융기관 건전성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계획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 총 8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캠프를 통한 민간배드뱅크 설립 등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은행권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통법 시행에 따른 투자은행의 자금순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안전성을 중요시한 상업은행들이 자금순환 구조 회복에 실패한 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은행들이 막힌 자금순환 구조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은행 스스로도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주주들의 증자를 통하여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금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영화 대상 정부은행, 매각 고려중인 외국계 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화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서둘러 발굴하고, 자본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 듀레이션 미스매칭 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통한 연체율 감소 노력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경영환경 악화 속에 예대금리차 급격히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지속 하락 · 잔액기준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0.6%~1.4% 수준으로 축소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역마진 현상이 우려

역마진 가능성의 원인	
대출금리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금리 하락으로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 하락
조달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자금조달 구조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고금리인 차입과 채권발행 비중 증가 · 무원가성 요구불 예금 비중 축소 - '머니무브' 현상 재연시 은행권 자금조달 환경 더욱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단기예금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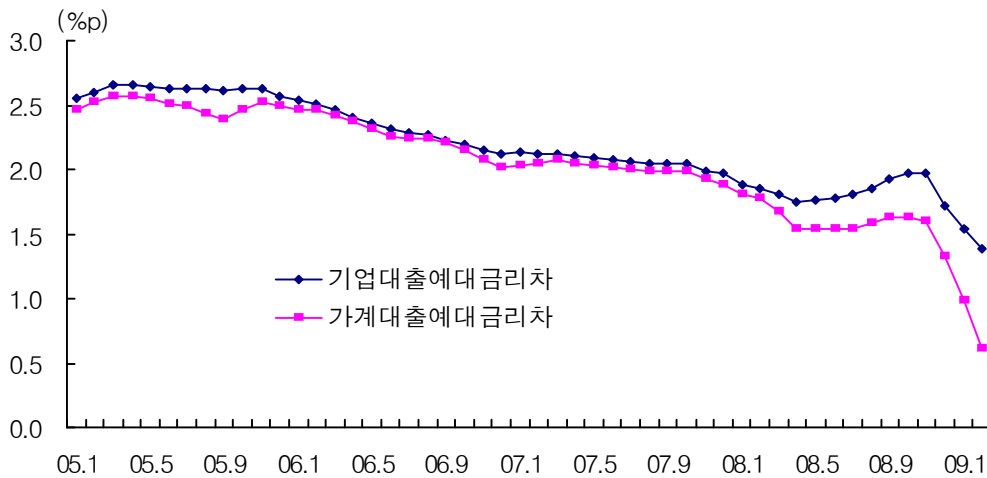
영향과 대응과제	
역마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이자이익 구조 약화와 경영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 급락 · 2008년 당기순이익 외환거래이익 제외시 1.3조원으로 급락 - 연체율 급등 속에 자산건전성 악화로 구조조정 문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이익 창출 불투명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 부각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심화될 경우 경기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건전성강화 vs 중소기업지원'의 정책 딜레마 봉착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당국의 선제적 건전성 보완대책 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민간배드뱅크, 법적 근거 시급 · 자통법 시행에 따른 투자은행의 자금순환 기능도 강화 - 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자 추진과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노력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 고객 신용정보 축적 및 세분화 등으로 연체율 감소 노력

1.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

○ 은행권 경영환경 악화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던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연말 이후 급락하고 있음
- 2005년까지만 해도 2.5%p를 상회하였던 예대금리차(잔액기준)가 2008년 여름까지 1.5%~2.0%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08년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2008년 2월 현재 0.6%~1.4%를 기록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권 순이자마진(NIM)도 지속적으로 하락 : 2005년 2.81%p → 2006년 2.64%p → 2007년 2.44%p → 2008년 2.29%p

< 은행권 예대금리차(잔액기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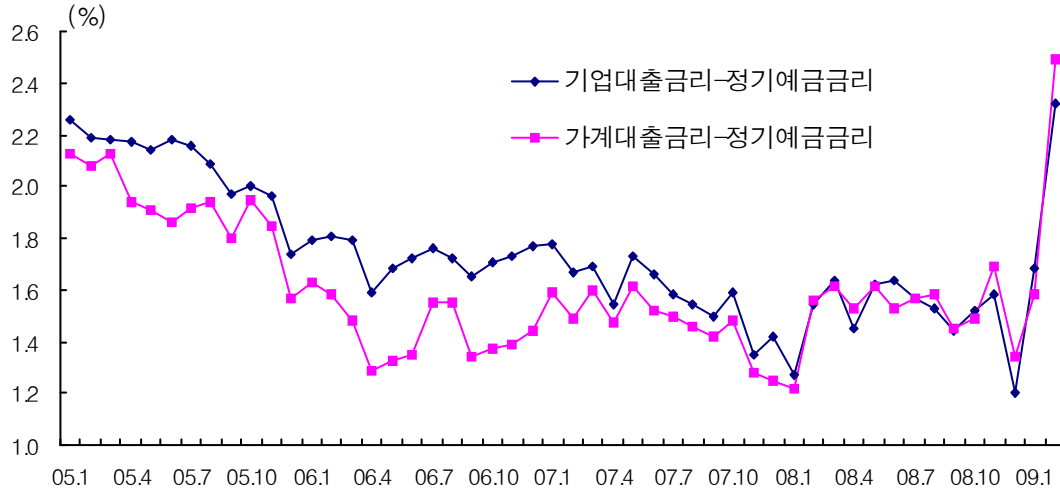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하지만 2009년에 들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는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고객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등) 하락 폭의 불균형 때문에 급등
- 즉,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이 예금금리는 급격히 하락시킨 반면 대출금리는 같은 정도로 하락시키지 않음¹⁾

1)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대한 신용도·기간 기여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였거나, 조정요소를 올렸기 때문임

< 은행권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기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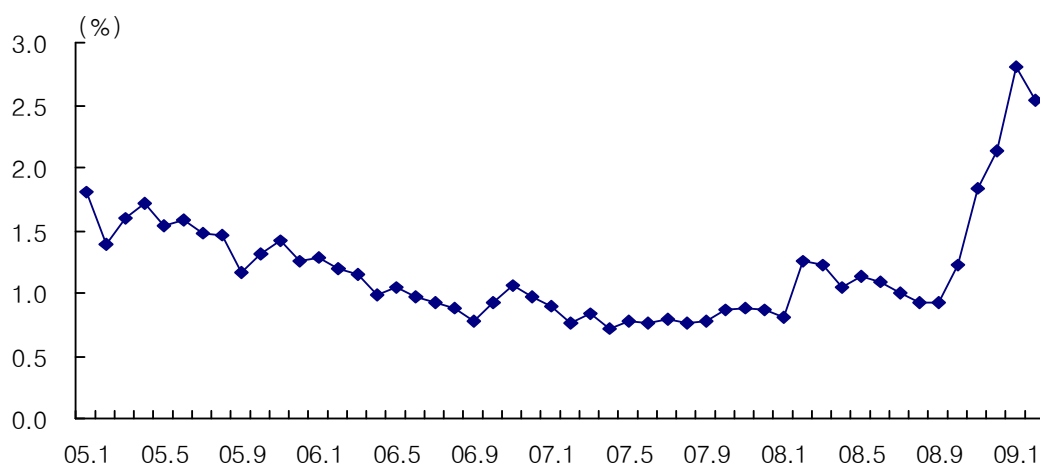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예대금리 축소 등에 따른 은행권 이자이익 하락 추세는 과거 보험회사들이 경험했던 역마진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초래하고 있음

- 보험사들의 역마진은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리가 초고금리 시기에 예정이율을 높게(10% 이상) 설정한 장기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하였음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 및 운용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역마진이란 변칙적으로 수신금리가 여신 또는 운용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아 은행 마진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을 말함
- 2000년대 초반 국내 금리는 경기부진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장기의 부채듀레이션과 높은 지급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은 역마진의 경험을 고통
-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대출 및 국채 등에 대한 운용수익률의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역마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공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려워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역마진 현상은 가뜩이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수익성 악화는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행동을 더욱 심화시켜 신용경색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보험사 등 비은행 대출기관들도 금리 급락에 따른 역마진 가능성에 직면
- 부동산 PF부실 등으로 비교적 부실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은 은행권의 예금 금리 급락에도 불구하고 예금이탈을 우려하여 예금금리를 소폭 인하하는데 그치고 있어 역마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수신기능 대신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로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캐피탈, 카드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도 금리급락에 따른 역마진 현상에 직면
 - 보험사도 기준금리 급락의 영향으로 운용 자산수익률이 지급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2000년대 초의 역마진 현상이 재연될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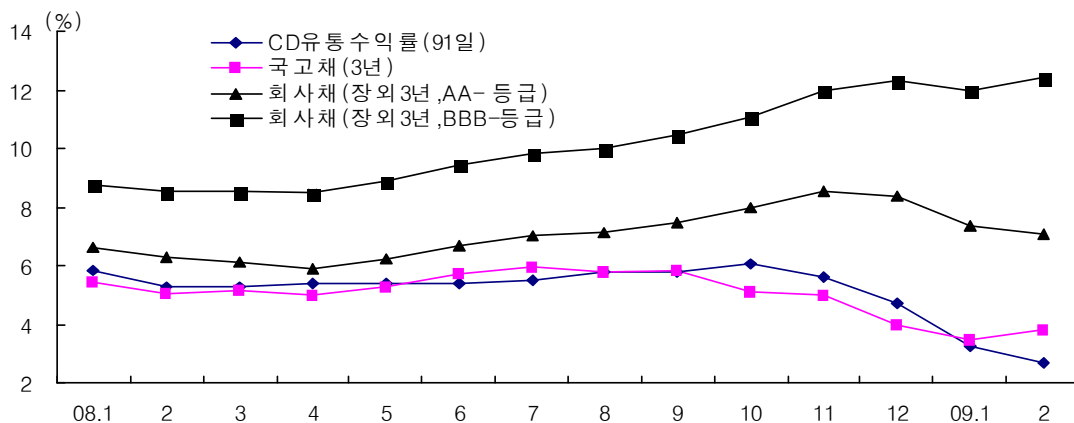
주 :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금리 - 은행 정기예금(신규취급액)금리

2. 역마진 가능성의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통화당국의 대폭 금리인하로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에 진입하면서 CD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대출금리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신청 이후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
 -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25%p 인하하여 2009년 2월 현재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
 - 인하폭이나 인하 횟수, 그리고 인하 속도에 있어서도 2001년 2월부터 8개월간 4차례에 걸쳐 1.25%p 인하하였던 경험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음
- 기준금리 급락으로 대부분의 단기 및 우량 시장금리가 즉각 반응한 가운데 특히 CD금리(CD유통수익률)가 더욱 빠르게 하락
 - 신용경색 현상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BBB-)의 경우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 CD금리의 경우 상대적 발행증가 등으로 2008년 10월 6.03%에서 2009년 2월 2.70%로 3.33%p 인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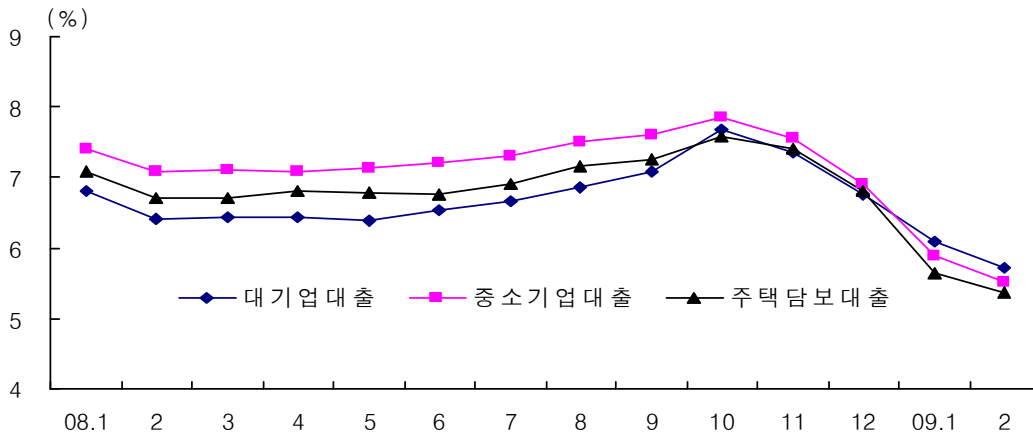
< 최근의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이에 따라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동반 급락하고 있음
- 대체로 모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하락에 맞춰 크게 떨어지면서 주요 대출금리가 5%대로 하락함(잔액기준 대출금리 역시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보다 다소 완만하지만 빠른 하락세를 보임)

< 최근의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신규취급액 기준.

-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 신용도, 기간 기여도, 가산금리(스프레드), 그리고 조정요소 등에 의해 결정
 - 자금조달비용은 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대출금리의 대부분(70% 이상)이 CD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사용

$$\text{대출금리} = \text{CD유통수익률} + \text{신용도} \cdot \text{기간기여도} + \text{가산금리(스프레드)} \pm \text{조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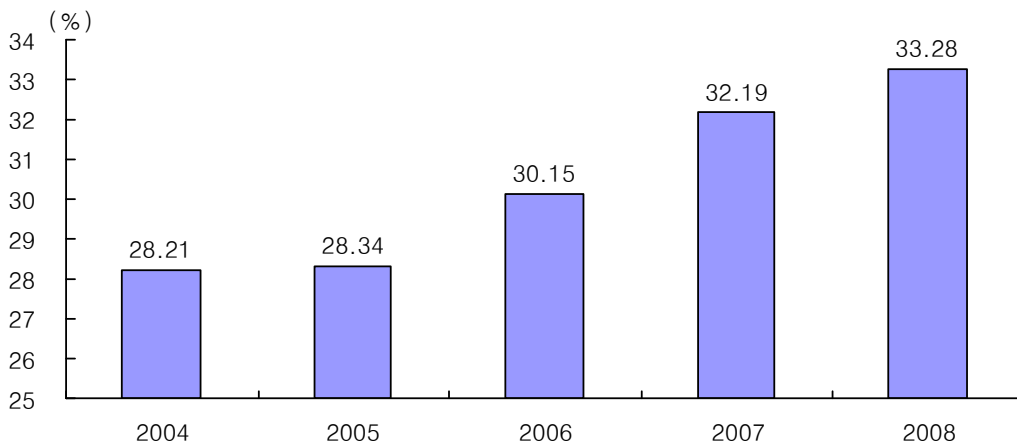
(조정요소 : 비제조업가산금리, 우량 중소기업 우대 적용, 특별금리, 특인금리 등)

○ 은행권 자금 조달구조 악화로 조달금리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비교적 고금리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한 조달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대신 무원가성 조달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은행권 조달비용 구조가 악화

- 2004년 각종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고비용 장기 조달비중은 2004년 24.21%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33.28%를 기록
 - 은행들은 2008년 하반기 BIS비율 유지를 위해 6~7%대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판매하였고, 7% 이상의 후순위채권과 8%대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²⁾
 - 반면 대표적인 무원가성 조달 수단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점점 낮아짐 : 4.96%(2004) → 5.28%(2005) → 5.25%(2006) → 4.91%(2007) → 4.16%(2008)
-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은행권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수신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가능³⁾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 등 시중은행과 기업은행·농협 등 7개 주요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3월말 현재 838조 1,492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 2,611억원(1.3%) 감소
 - 높은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및 단기(2년 이내) 예금비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은행 고비용 조달 비중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원화(외화) 사채발행 + 원화(외화) 차입금 + 원화(외화) 기타 자금조달 합계.

- 2)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5년 이내 상환금지 조건도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발행금리는 변화가 없어,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발행됨
- 3) 2008년 3월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130%에 달하고 단기의 채비율도 올해 말 102%에 이를 전망이다"라 개발도상국 중 세 번째로 취약하다"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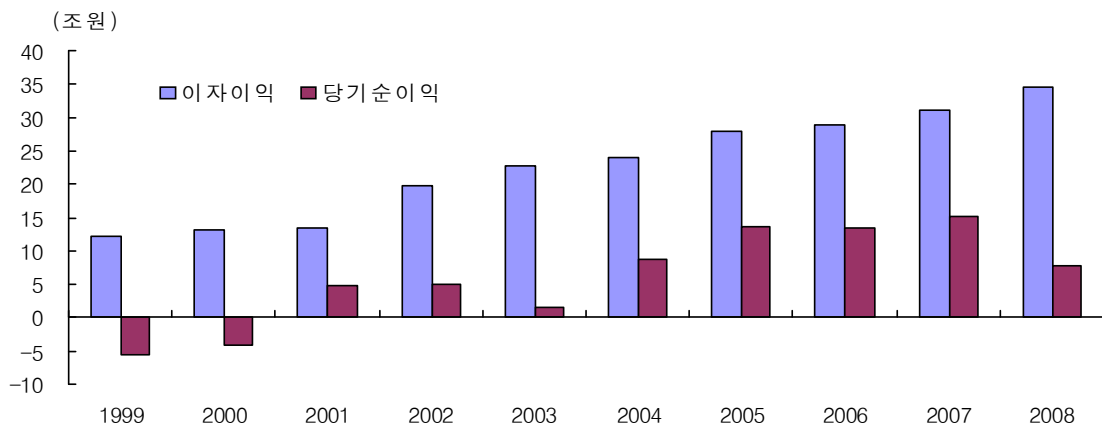
3. 영향과 대응과제

1) 역마진의 영향

○ 2008년 은행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역마진 현상은 은행 이자이익 창출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임

- 2008년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15.0조원) 대비 7.1조원 감소(47.4% 감소)한 7.9조원을 기록
- 예대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이자수익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2007년 989.0조원 → 2008년 1,147.3조원)
- 당기순이익 감소는 전년에 비해 총당금 전입액이 5.4조원 증가한 것과 증시 침체 등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한데 기인 (금융감독원)

< 국내은행 이익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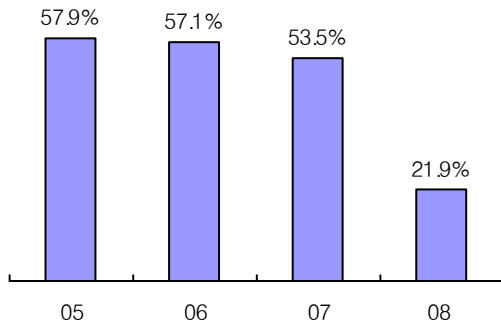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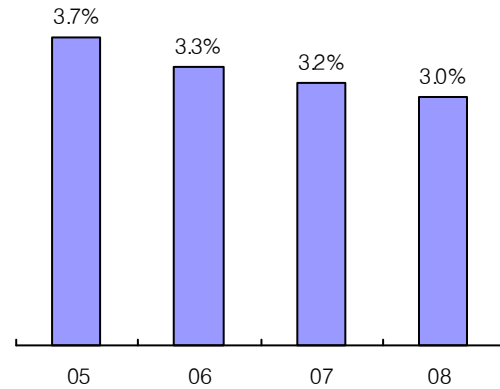
- 그러나 전통적으로 은행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영업수익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급감하고, 대출자산대비 이자이익도 하락세를 지속
- 이자수익비중(이자수익/영업수익)은 2007년 53.5%에서 2008년 21.9%로 급락
- 대출자산 대비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의 경우 2007년 3.2%에서 2008년 3.0%로 지속 하락

< 국내은행 이자수익과 이자이익 추이 >

은행 영업수익 대비 이자수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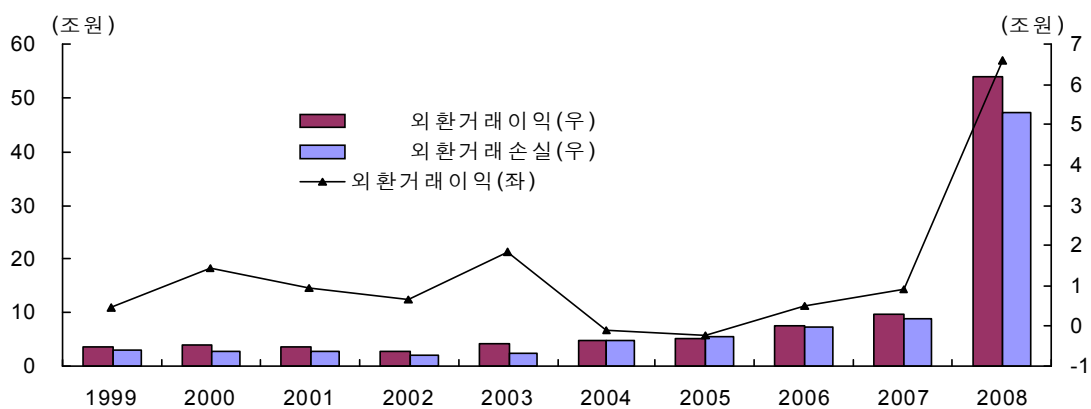
대출자산 대비 이자이익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2008년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외환거래를 통한 이익'(외환거래이익 - 외환거래손실)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⁴⁾
- 이미 2008년 4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000억 원 이상 적자를 시현
-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락한 가운데 벌어들인 외환거래 이익 6.6조 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1.3조원 수준에 그침

(은행 외환거래 이익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4) 외환거래를 통한 이익은 수수료가 아닌 외환 딜링 등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류

○ 연체율 급증 속에 2009년 은행권 건전성 문제가 본격 부각되면서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점증

- 지난해 말 부터 은행권의 연체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한 지속 예상
 - 2009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동월말 대비 0.66%p 상승한 1.67%를 기록
 -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09년 2월말 현재 2.67%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 가계나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파산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지속될 수 있음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

	'05말	'06말	'07말	'08.2말	'08.9말	'08.11말	'08.12말	'09.1말	09.2 말
기업대출	1.34	1.00	0.92	1.25	1.30	1.60	1.46	2.04	2.31
대기업	0.09	0.49	0.37	0.28	0.30	0.34	0.34	0.59	0.63
중소기업	1.55	1.07	1.00	1.40	1.50	1.87	1.70	2.36	2.67
가계대출	1.12	0.70	0.55	0.76	0.58	0.67	0.60	0.82	0.89
주택담보대출	1.14	0.58	0.43	0.60	0.44	0.48	0.48	0.66	0.70
원화대출 계	1.21	0.84	0.74	1.01	0.97	1.18	1.08	1.50	1.67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 원화대출 : 은행·신탁계정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2)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은행권 재무제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2009년에는 연체율 급증에 따른 대손충당금 급증으로 이익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전망
 - 역마진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은행 본연의 여수신 업무를 통한 이자이익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원화대출 자산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말 271.9조원에서 2008년말 805.2조원으로 3배 이상 커진 상태라 조그만 연체율 변화에 은행 이익구조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이익 악화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2 차례의 은행구조조정에 이어 또 다시 은행권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지난해 말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12%대로 올라선 BIS비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건전성 문제가 재부각될 수 있음
 - 1차 금융구조조정(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 7월까지) : 누적된 금융부실을 처리하고,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전례 없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
 - 2차 금융구조조정(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 대우사태 이후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과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 동조 등을 위하여 리딩뱅크의 탄생을 유도

< 국내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BIS 비율(%)	13.18	13.05	13.10	12.75	12.99	12.87	12.71	12.32	11.20	11.36	10.86	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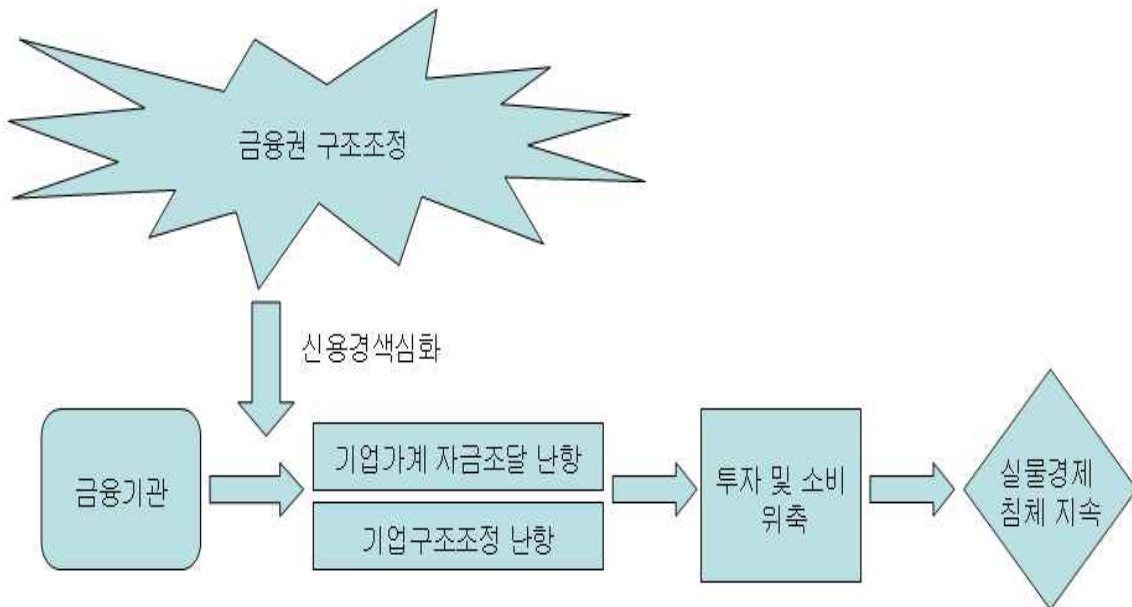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경우 시급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정책적 딜레마에 장기간 빠지게 될 경우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중소기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에서는 제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우리 경제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상반된 입장의 교착상태에서 상당기간 빠져 나오기 힘들 수 있음
-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 심화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조달과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지연시키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금융권의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해 건설과 조선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
-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보유 회피는 자금수혈이 절실한 기업 및 가계 대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한계기업에 대한 회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민간 신용공급이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

< 신용경색에 따른 경기침체 메카니즘 >



2) 대응 과제

○ 정부로서도 은행권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성 보완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

- 3차 구조조정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빠르면 빠를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와 구조조정기금(40조원), 금융안정기금(2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유사) 공적자금 마련을 차질 없이 진행

- 과거 외환위기 당초 계획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계획 중인 캠프를 통한 민간배드뱅크 설립 등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관리기구도 마련하되 과거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독기능을 강화
- 효율적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국회와 협조하여 서둘러 마련
 - 4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도 자본 확충을 위해서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 부실이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시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현재의 상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벗어나 투자은행 기능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⁵⁾
 - 투자은행의 구조조정은 블루오션인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안전성을 중요시한 상업은행들이 자금순환 구조 회복에 실패한 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막힌 자금순환 구조를 풀도록 유도

○ 은행 스스로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자구노력도 절실함

- 자본금을 증대하여 기본 자본을 확충하거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존 주주들의 증자를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산업자본의 자본참여를 검토
 - 민영화 대상 정부은행, 매각 고려중인 외국계 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화도 고려

5) 금융산업의 은행집중현상은 소규모 충격에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커다란 충격이 닥칠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가 절실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서둘러 발굴하고, 자본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자금조달 악화에 직면하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을 맞춰 자산부채 미스매칭 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할 필요
 - 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상승세 지속

○ 3월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0.5%로 2개월 연속 상승함

- 공산품은 1차금속제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전년동기대비 3.5%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수입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과실과 축산물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전월대비 1.9%, 전년동월대비 14.7%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부동산(0.5%), 광고(1.9%)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수(-0.2%), 전문서비스(-0.2%) 등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2월	3월	
경기	경제성장률	5.0	2.8(-3.5)	5.8(0.8)	4.8(0.8)	3.8(0.5)	-3.4(-5.6)	-	-	
	수요	소비재판매	5.1	1.0	4.4	2.9	1.4	-4.2	-6.2	-
		설비투자추계	9.2	-3.2	-0.7	-0.5	5.3	-16.2	-21.2	-
		건설수주	23.6	-9.0	-3.7	-6.1	-22.7	-6.5	-20.7	-
		수출	14.1	13.6	17.4	23.1	27.1	-9.9	-18.3	-
	공급	광공업생산	6.9	3.0	10.9	8.9	5.6	-11.3	-10.3	-
		취업자수 (만명)	2,343	2,358	2,305	2,387	2,373	2,367	2,274	-
		실업률	3.2	3.2	3.4	3.1	3.0	3.1	3.9	-
		수입	15.3	22.0	28.9	30.5	42.8	-9.0	-30.9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9	-64	-52	-1	-86	75	37	-
무역수지 (억\$)		146	-132	-66	-3	-79	15	29	-	
물가	생산자물가	1.4	8.4	5.1	9.0	11.3	8.0	4.4	3.5	
	소비자물가	2.5	4.6	3.8	4.8	5.1	4.5	4.1	3.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 역전

○ (해외 금융 시장) 미 달러화 재차 강세 시현

- **금리**: 1/4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와 FOMC 의사록의 경기 추가 하강위험의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590억 달러의 대규모 국채 공급부담과 미 주요경제지표 호전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미국채 10년물 : 2.89→2.92%)
- **환율**: 엔화는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로 미 달러화 대비 강보합을 보였고, 유로화는 유로존 2월 소매판매의 대폭 감소 등 유로지역 경기 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전주말 대비 대폭 약세 (\$/€ : 1.3486→1.3169, ¥/\$: 100.32→100.42)

○ (국내 금융 시장) 국내 금융 시장의 트리플 강세 시현

- **주가**: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급락하였으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283.8→1,336.0)
- **금리**: 순조로운 국고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급부담 우려 속에서 주초반 상승하였으나,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로 인해 전주말 대비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 3.95%→3.88%)
- **환율**: 단기 급락에 대한 조정으로 주초 급등세로 출발한 후 외평채(30억달러 규모) 발행의 성공으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1,340.5→1,333.0)

○ (전망) 국내금융시장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4.3	4.1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283.8	1,336.0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95	3.88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40.5	1,333.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8,017	8,083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749	8,916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89	2.92
	일본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43	1.48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486	1.3169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100.32	100.42
	두바이(\$/바렐)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50.75	51.9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9)기준.